

10 월 농식품 해외시장동향 및 전망 [미국-뉴욕]

□ 농림수산물 수입동향

(단위: 천불)

구 분	8월 당월		1~8월 누계	
	금액	전년동기 대비(%)	금액	전년동기 대비(%)
농림축수산물 전체	11,213,332	10%	89,473,252	7%
소 비 재	4,986,415	7%	41,456,307	6%
중 간 재	2,170,180	47%	17,066,235	23%
수 산 물	1,418,915	6%	10,995,301	5%
벌크농산물	1,461,814	-22%	11,807,461	-8%
임 산 물	1,176,009	23%	8,147,949	13%

자료원 : USDA FAS(Foreign Agricultural Service) 수출입통계 자료 (8월 기준 자료)

※ 소비재 (야채, 과일, 와인/맥주, 스낵류, 가공 야채과일, 육류, 견과류, 커피, 낙농제품, 향신료, 화훼류 등)
 중간재 (가축, 식용기름, 설탕류, 종자류 등)
 수산물 (어류, 갑각류, 해조류 등)
 벌크 농산물 (고무, 코코아, 커피 원료, 담배, 차류, 곡류 등)
 임산물 (목재류, 펄프 제품 등)

□ 주요품목 수입동향

(누적금액, 단위: 천불)

품목	작년 (‘11.8)	금년 (‘12.8)	증감%	1위		2위		3위		한국산
				국가	금액	국가	금액	국가	금액	금액
배	73,107	49,395	-32%	아르헨티나	28,097	칠레	12,118	한국	3,626	3,626
신선버섯	74,054	83,849	13%	캐나다	69,650	멕시코	5,665	중국	3,739	1,467
인삼(엑기스)	15,373	16,639	8%	프랑스	7,552	중국	4,517	한국	2,705	2,705
인삼뿌리(재배)	14,943	23,639	58%	중국	15,219	홍콩	3,375	캐나다	2,597	1,329
스낵류	4,067,832	4,289,760	5%	캐나다	1,961,723	멕시코	999,422	독일	165,197	20,437
가공과일채소	4,226,061	4,489,641	6%	캐나다	869,129	멕시코	797,416	중국	688,916	34,130
낙농제품	897,428	1,109,043	24%	뉴질랜드	498,255	캐나다	86,683	아일랜드	65,120	8,609
과채류주스	1,328,024	1,276,346	-4%	중국	444,381	브라질	167,565	아르헨티나	141,330	1,156
견과류	1,088,231	1,153,208	6%	베트남	255,283	인도	214,602	멕시코	185,458	525
와인/맥주	5,662,727	5,944,172	5%	멕시코	1,333,119	이태리	1,001,170	프랑스	849,456	4,653
화훼류	1,043,275	1,115,952	7%	콜롬비아	466,677	캐나다	186,024	에콰도르	124,435	1,254
커피(인스턴트)	765,723	780,552	2%	캐나다	257,437	콜롬비아	98,039	멕시코	91,272	4,277
향신료	827,523	857,103	4%	인도	180,314	인도네시아	112,643	중국	84,631	2,307
차류(허브)	423,087	446,503	6%	중국	89,952	캐나다	81,056	아르헨티나	58,639	5,146
종자류	678,045	992,635	46%	칠레	328,634	캐나다	175,802	아르헨티나	71,009	3,470

※ 자료원: USDA FAS(Foreign Agricultural Service) 수출입통계 자료 (8월 기준 자료)

※ 미국의 주요 식품수입국으로는 캐나다(18,952,182), 멕시코(12,055,720), 중국(6,716,209) 순이며, 일본(579,702) 27위, 한국(317,824)로 37위순으로 각국에서 수입하고 있음

※ 미국내 한국산 농식품 수입품중 가공과일채소(41%), 커피(인스턴트포함, 17%), 와인/맥주(14%)등이 전년 동기 대비 수입이 증가했으나, 낙농제품(-15%), 과일주스류(-71%), 견과류(-6%) 등은 감소했음

○ 한국산 수입 증감내용

- 2012년 8월 한국산 농림 수산물 전체 수입액은 317백만불로 전년동기 대비 9% 상승
 - 소비재 농축산물: 전년도 대비 184백만불에서 209백만불로 14% 증가
 - 수산물 : 전년도 대비 81백만불에서 75백만불로 7% 감소
 - 중간재 농축산물 : 전년도 대비 19.9백만불에서 25.6백만불로 28% 증가
 - 벌크 농산물 : 전년도 대비 4.6백만불에서 5.4백만불로 17% 증가
 - 임산물 : 전년도 대비 1,825천불에서 2,385천불로 31% 증가

□ 향후 시장 전망

○ 이슈`현안

- 2012년 미국 농업법 통과에 진통 예상
 - 적극적인 정부 재정정책을 펴자는 민주당과 정부개입과 역할의 축소를 원하는 공화당 간의 의견대립은 푸드스탬프 제도로 알려진 식품보조지원 제도 지출에 관한 것임
 - 미정부는 매년 750억불 이상의 예산을 배정해왔는데 이 제도가 총 농업예산지출의 60%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
 - 해당 정책으로 수혜자는 약 4,6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%에 달하며 막대한 식품보조 지원예산과 관련해 감축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예산삭감 폭을 늘리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감시 강화를 요구하는 공화당간 의견 대립이 팽배함
 - 지난 6월 상원에서 통과된 미농업법은 하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나 계속되는 민주·공화 간 정쟁과 미정부의 재정절벽 문제로 연말까지 농업법을 통과시키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전문가들은 내년 4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.

□ 특정품목 시장동향 : 맥주(Beer)

○ 현황

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술은 크게 도수가 높은 증류주(Distilled Spirits)와 저도주인 맥주, 와인 등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. 11년 기준 미국의 주류시장은 맥주가 53.2%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, 증류주가 31.8%, 와인이 15%를 구성하고 있다. 미국 내 맥주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감소중이나 여전히 미국내 주류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.

미국 내 주류 시장 점유율

년도	맥주	와인	증류주
2005	57.0%	14.0%	29.0%
2006	56.7%	14.1%	29.3%
2007	56.3%	14.2%	29.5%
2008	56.0%	14.2%	29.7%
2009	55.2%	14.4%	30.4%
2010	54.3%	14.7%	31.0%
2011	53.2%	15.0%	31.8%

* 10K Reports, DISCUS Estimates & Adams/BIG Wine Handbook
Distilled Spirits Council, Economic & Strategic Analysis Dept.

○ 미국 내 맥주시장 동향

- 지난 1월, 시장조사 업체인 닐슨에 따르면 미국 식료품점, 드러그스토어, 주류 소매점, 편의점의 총 맥주 판매량은 274억불을 넘었으나 이는 작년보다 0.6% 넘어선 금액임.
- 맥주류 중에서 라이트 맥주는 1.2% 하락했으나 일반 맥주는 2.7%가 증가했음.
- 지난 수년간 맥주의 판매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지만 크래프트(Craft) 맥주의 판매량은 지난 3년간 17% 증가했으며 21.5억불의 판매량을 기록했음.
- 수입산 미국맥주 중에는 벨기에산 맥주(25.5%)가 높은 판매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아시아산 맥주(8.3%), 오스트레일리아산 맥주(4.1%) 순서임.

*미국 식료품 유통업체인 Wegmans, Jungle Jim's 그리고 Giant Eagle 같은 업체들은 음식과 맥주의 이상적인 조합과 맥주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판매증가에 힘쓰고 있음

○ 프리미엄 맥주시장의 아이콘, 크래프트(Craft) 맥주

-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맥주가 아니라 소규모 맥주 양조장에서 소량으로 만들어내며 매년 일정량만을 생산하는 고급 맥주로 미국양조협회(American Brewers Association)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.

1. 소규모: 연간 생산량 기준이 6백만 배럴(7억 리터 규모) 이하
2. 독립경영: 독립된 자본으로 경영해야하며 외부 자본 비율이 25% 미만
3. 전통유지: 기본적으로 올몰트(all malt) 맥주를 해당 양조장의 주력 제품으로 판매하고 첨가제가 들어간다면 풍미를 강화시키는 첨가제의 비중을 적어도 50% 이상 요구

- 작년 12월 민텔 보고서에 따르면 크래프트 맥주를 찾는 주요 고객들은 독특한 맛, 한정 생산된 제품을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켜 크래프트 맥주의 판매액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예상함.
- 이에 미국내 주요 맥주 업체들은 크래프트 맥주가 맥주의 범주 중에 가장 작은 시장을 차지하지만 적극적으로 공략에 나서고 있음.
- '11년 크래프트 맥주 양조 산업의 규모는 '10년 대비해 산업의 규모와 금액이 13%, 15% 상승했으며 크래프트 맥주 생산량은 '10년 1,013만배럴에서 1,146만배럴로 증가함.

○ 미국 맥주 시장 향후 전망

- 2005년부터 6년간 4% 가까이 떨어진 맥주시장 점유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하락하고 있는 맥주시장 점유율은 와인과 증류주 시장이 나눠 갖고 있으며 이들 주류에 대한 긍정적인 맛과 기호를 가진 소비자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.
- 맥주 카테고리에 활력을 불어넣는 크래프트 맥주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 인기는 지속적인 판매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.